

백두대간, 대자연의 선물

강행옥 위원
광주중재부, 변호사



백두대간 석병산 절경

지난 여름 37도의 무더위 속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너무나 힘이 들어 나 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지리산 자락을 넘어 백두대간 산행을 시작하였다.

별다른 준비없이 의욕만으로 나선 길은 처음에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다. 신평령에서 소사고개를 넘어 삼도봉을 오르다가 숨이 턱에 차서 배낭을 진 채 뒤로 벌러덩 눕기도 하였고, 가는 로프 하나에 의지하는 하강코스에서 겁에 질리기도 하였다.

지리산에서 속리산 늘재까지 300여 km는 수도승들의 만행과 같은 고행 길이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참회의 길이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들이 자꾸만 생각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한 시간 이상을 고통 속에서 반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청화산, 대야산을 넘고 황장산, 도솔봉을 넘어 소백산 구간으로 다가가면서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대간이 나에게 주는 대자연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었다. 문 북대 오르는 길에 잔디처럼 온 산을 덮은 애기나리 꽃밭, 소백산 언저리부터 200km가 넘게 이어지는 참나무 길은 가슴 떨리는 감동이었다. 이 땅에 태어나 그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히 채워졌다.

만약 이 아름다운 길을 야생화의 길, 참나무의 길(oak's road) 등으로 이름 붙여 전 세계 산꾼들에게 소개한다면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래킹 코스(뉴질랜드 남섬 코스트피요랜드 국립공원에 위치한 유명한 청정 트레일 코스)보다

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 길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과 애환들이 전설이 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가!

또 다시 광주의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던 이번 여름 휴가철에 나는 피재에서 땃재, 땃재에서 백복령 구간을 7월 말에 넘고, 8월 둘째 주에는 백복령에서 닭목령, 닭목령에서 대관령 구간을 넘었다. 그 중 땃재에서 백복령 구간은 GPS로 29km가 넘는 거리로 한꺼번에 가느라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 해동삼봉의 경승을 한꺼번에 맞볼 수 있었으나 무리한 산행으로 탈수증세를 겪기도 했다.

백복령에서 18.2km 떨어진 삽당령까지가 한 구간인데, 14.5km를 더 지난 닭목령까지 하루에 가느라 나중에는 날이 어두워져서 땃돼지 우는 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땃재 휴게소나 백복령 펜션 잠자리는 창문을 꽂꽂 닫고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시원하여, 열대야라는 낱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피서를 제대로 하였다. 물론 대간상에는 참나무류의 활엽수들이 우거져 한여름에도 25도 이상을 넘지 않는 시원한 온도에서 산행이 가능하였으니, 사무실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것보다 나았다고 할까.

이제 대관령을 지나 종점인 진부령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아껴 먹는 어린애처럼 나무 한그루 풀잎 하나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대간이 주는 호연지기와 평온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끝으로 백두대간이 우리만 보고 즐기는 자연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는 명품 트래킹 코스로 거듭나, 대간길에서 각종 외국어가 상시 들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간길의 끝인 백두산까지 마음 놓고 종주를 하게 될 그날은 더더욱 빨리 왔으면 좋겠다.